

12  
2025

재외동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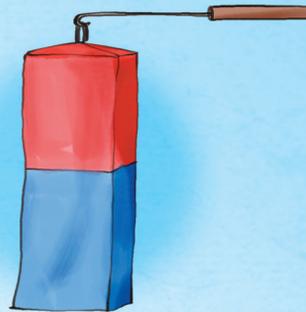
창



특집 \_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이슈 앤 화제 \_ 재외동포청, 2026년 업무추진 계획 발표  
송년기획 \_ 2025 재외동포청 10대뉴스  
이달의 재외동포 \_ 재일동포사회에 기여 오기문 전 재일대한부인회장



# 위대한 유나이티드 코리아를 향하여



**전**후 이스라엘은 국가 재건의 핵심 전략으로 이민정책을 선택했다. 유대 민족의 귀환, 즉 알리아(Aliyah)를 최우선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전 세계 유대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이었다.

1950년 제정된 귀환법(Law of Return)은 유대인에게 이 나라로 이주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했고, 이 법에 따라 입국한 이들은 시민권 취득의 길을 보장받았다. 이어 1952년 국적법(Nationality Law)은 귀환법에 따른 이민자를 곧바로 국가 구성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민과 시민권을 제도적으로 결합했다. 그 결과 건국 초기 약 80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오늘날 천만 명 규모로 성장했다.

초고령 사회에 일찍 진입한 일본 역시 이민을 단기 처방이 아닌 국가 전략으로 접근해 왔다. 해외에 직업훈련 기반을 구축하고 언어·직업·문화 교육을 병행해 자국 경제에 즉시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선별적으로 유입하고 있다. 해외에서 한글 교육과 한류 확산, 의료 봉사 활동을 지켜보며 필자는 이러한 장기적 인력 설계와 대비되는 우리의 현실에 아쉬움을 느꼈다.

우리나라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가 귀국하더라도 대부분 재외동포(F-4) 비자로 장기간 체류한 뒤에야 영주권(F-5)이나 국적 회복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동포'이지만 실제 정착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더욱이 해외에는 국적조차 갖지 못한 무국적 고려인, 특히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은 충분하지 않다.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 계기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됐다. 미국 버지니아공대 교수로 재직 중인 형님을 방문했을 때, 한 모임에서 “어느 나라가 더 좋으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형님은 “한국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이고, 미국은 나를 키워준 아버지”라고 답했다. 그 순간 필자는 선진 민주국가에서도 이민자를 바라보는 미묘한 경계선이 여전히 존재함을 느꼈다.

한국은 오랫동안 인력과 인재를 해외로 보내온 나라였다. 지금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보다 국적을 포기하는 국민이 더 많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축소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구조적인 이민 적자 문제로 직시해야 한다. 이제 이민정책은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다.

최근 거제 조선업은 LNG 운반선 수주 확대와 한미 조선협력



**라종익**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  
 (중앙아시아 통일과 나눔아카데미 이사장)

프로젝트(MASGA)에 대한 기대 속에 활력을 되찾고 있다. 그러나 조선소 현장의 다수 인력이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돼 있고, 이들의 소득 상당 부분이 본국으로 송금되면서 지역경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는 여전히 한계로 남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각종 지원이 중첩되며 노동시장 참여를 주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민정책은 온정주의나 단기적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 이익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둔 전략 정책이어야 한다. 이주민이 한국 사회 안에서 역량을 쌓고 정착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제도적 경로를 마련할 때 '코리안 드림(Korean Dream)'도 현실이 된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이민 관련 행정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이 같은 구조로는 일관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기 어렵다. 총리실 산하 '재외동포·외국인정책위원회'로 정책 체계를 일원화하고, 재외동포청과 외국인 정책 기능을 통합한 이민청(또는 이민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다.

이민정책의 성공은 외국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의 조화 속에서 완성된다. 왼손(외국인·재외동포)과 오른손(우리 국민)이 함께 방향을 맞추는 '유나이티드 코리아'의 국가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 인구 감소 시대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남기기 위해서다. **창**



- 02 창을 열며** 위대한 유니타이드 코리아를 향하여  
라종역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중앙아시아 통일과 나눔아카데미 이사장)
- 04 특집**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80년만에 고국 품으로'...사할린 동포 82명 영주귀국  
재외동포청,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연말 위문품 전달  
고향미를 성경자 씨 "죽기전 평양 언니 만나는 게 소원"
- 08 이슈 앤 화제** 재외동포청, 2026년 업무추진 계획 발표
- 10 송년기획** 2025 재외동포청 10대뉴스  
출범 3년차 국정과제 실현 위해 숨 가쁘게 달려
- 14 이달의 재외동포** 재외동포사회에 기여 오기문 전 재일대한부인회장
- 16 정책 돋보기** '고려인 위기가정 및 재외동포 지원정책' 토론회
- 18 초대석** 최고조 주한 가나대사  
선교사 아들 금의환향... "한국·가나는 두 어머니"
- 20 인터뷰** '차세대 동포 청년 모국 방문' 참가자  
정안나 "한-러시아 청년 교육 연결고리 되는 게 꿈이에요"  
윤에스더 "고려인도 모국 전문직서 성공할수 있어요"
- 22 뉴스속으로** 24시간 글로벌 소통 플랫폼 '동포ON' 공식 출범  
동포청, 내년 예산 56억 늘어난 1천127억원...귀환동포 지원 강화  
재외동포청-한국사회학회, '포용적 국내 동포 정책' 논의
- 25 OKA 뉴스** 재외동포청-한국경영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외
- 26 재외동포청 공지** 2026년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참가자 모집



**발행인:** 김경현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2-6747-0404, [www.oka.go.kr](http://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https://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http://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80년만에 고국 품으로’ …사할린 동포 82명 영주귀국

## 18일 동해항서 환영식…1992년부터 총 5천690명 고국 정착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안정적 정착 위해 최선 다할 것” 약속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 82명이 18일 강원도 동해항 국제 여객터미널을 통해 고국 품에 안겼다.

영주귀국 사업을 주관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단체입국 환영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허정구 대한적십자사 사할린동포 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해 80여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동포들을 맞이했다.

이날 단체입국 사할린 동포 중 김동희(85) 할머니는 “먼저 영주 귀국한 사할린 친구들이 있어 외롭지 않을 것”이라며 기뻐했다. 1940년 북한에서 태어나 갓난아기 때 사할린으로 건너간 김 할머니는 34년 전 남편을 잃고 1남 1녀를 키워냈다.

역시 북한에서 태어난 도주복(94) 할머니는 “7세 때 부모와 함께 사할린으로 건너갔다”며 이번에 딸과 함께 오게 돼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청장은 환영 인사에서 “이번 영주귀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80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며 “특히 영주귀국 대상 사할린 동포의 과반수가 돌아온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할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하여 한국까지 오는데 3일이 소요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제적 상황으로 인해 직항 운항이 어렵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전세기 운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세기 도입 방안을 타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특히 “조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외롭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나 사할린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



영주귀국하는 사할린 동포 안내하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뿔꽃 오른쪽)

며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사할린 동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자녀 모두의 영주귀국이 가능해졌다”면서 “더 많은 동포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영식이 끝난 후 동포들은 버스 11대에 나눠타고, 서울, 인천, 안산, 김포, 남양주 등 새 거처를 마련한 전국 각지로 이동했다.

한편,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사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1992년 영주귀국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금번 귀국자를 포함해 총 5천 690명의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했다. **창**

# 동포청,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연말 위문품 전달

## 김경협 청장 “안정적인 국내 정착 위해 지속 노력할 것”

### 2025년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연말 위문품 전달식

일 자 2025년 12월 12일 (금)



12일 오후 경기 안산시 고향마을 복지관에서 진행된 '2025년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연말 위문품 전달식'에서 김경협(왼쪽서 4번째) 재외동포청장이 주훈춘(왼쪽서 5번째) 안산 고향마을영주귀국자노인회장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2일 약 750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 고향마을 복지관에서 영주귀국 동포들을 격려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장, 주훈춘 안산 고향마을영주귀국자노인회장과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 지역 사할린동포 주민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전달식에서 “사할린 동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국 귀국을 원하는 동포들을 모셔 오는 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넓혔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새로운 법안에서는 고국 땅을 밟기를 기다리다가 사할린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까지 모실 수 있도록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김 청장은 또 “동포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함과 부족함이 많을 것”이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가의 힘이 없어서, 때로는 의지가 약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는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가 끝난 후 김 청장은 고향마을 내 경로당과 노인회 사무실 등을 방문해 동포들의 생활을 직접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 청장은 연말 추운 날씨를 맞아 동포들의 생활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난방 상황을 걱정하며 “구들장이 뜨끈뜨끈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동포청이 정성으로 준비한 위문품은 추운 겨울을 굳건하게 잘 이겨내시라는 의미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연말을 맞아 고향마을을 포함, 전국 20개 지역에 거주하는 3천200여 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게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맺은 인천 강화군에서 생산된 햅쌀을 전달했다.

아울러, 인천 사할린동포복지회관과 경북 고령군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 약 80명의 사할린 동포들에게도 선물을 전달했다. **창**

# 고향마을 성경자 씨 “죽기전 평양 언니 만나는 게 소원”

## 김 청장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 위해 노력…언니 만날 수 있을 것” 위로 “의사 돼서 네 다리 고쳐줄게”…동생이 평생 간직한 언니의 약속

**지**난 12일 국내 최대 규모의 사할린 동포 정착 마을인 경기 안산시 고향마을. 이곳엔 사할린에서 모국으로 영주귀국한 고려인 1~2세 75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날 고향마을을 방문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경로당과 체력단련실, 노인회 사무실 등을 둘러보며 동포들의 생활을 직접 살피고 있었다. 그때였다. 지팡이를 짚은 한 할머니가 김 청장의 발걸음을 막아섰다. 고려인 2세 성경자(80) 할머니였다.

성 할머니는 김 청장에게 “남과 북이 하나로 뭉치면 강대국이 된다”면서 “빨리 통일이 돼 언니를 만날 수 있게 소원을 풀어달라”며 절절히 호소했다.

김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언니를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손을 잡았다.

말을 마친 성 할머니는 기자에게 집으로 가서 언니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이끌었다. 낯선 이방인을 서슴없이 집으로 안내할 만큼 사람이 그리웠던 듯, 할머니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 탄광으로 끌려간 아버지, 흩어진 가족

도착한 집은 정부가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에게 제공한 주공 아파트 1층이었다. 복도 문앞에는 전동차가 놓여 있었다. 다리가 불편해 종종 이용한다고 했다. 넓지도 좁지도 않은 방 2개짜리 66㎡ 정도의 아담한 보금자리. 집안 곳곳 벽면에 빼곡히 붙은 사진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2019년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했다는 성 할머니는 나무 작대기로 벽면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다. 부모님, 언니와 두 남동생, 하바롭스크 성당 지인들, 친구들 모습까지 사할린 시절의 추억이 시간의 곁을 따라 붙어 있었다.

“혼자 사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화장실 갔다 나오며 이렇게 사진 보면서 함께 산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언니예요. 나보



지난 12일 고향마을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성경자 할머니.

다 네 살 많아요. 지금 평양에 살고 있어요.”

성 할머니가 평양의 성영자(84) 언니를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한다고 말하는 데는 오래된 이유가 있다. 어린 시절의 한 사고 때문이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아홉 살 때 학교 앞에서 뛰어놀다가 공사장 구덩이에 빠졌어요. 엉덩뼈가 튀어나왔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막 소리 지르고 울었죠.”

### 사할린이 남긴 ‘4남매의 비극’

때는 일본 패전 직후, 러시아 군대가 들어온 혼란기였다. 일본인 의사들은 모두 쫓겨나 치료는커녕 진찰조차 받기 어려웠다. 방치된 상처는 그대로 굳어 다리는 평생 뺄뿔어졌다.

그 순간 언니가 말했다. “내가 의사가 돼서 네 다리 고쳐줄게.”

언니는 공부를 잘했지만, 1960년대 아버지가 ‘무국적’을 선택하면서 소련 본토에 있는 대학 진학이 불가능해졌다. 무국적으로 남은 이유는 언젠가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자녀들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 12일 오후 경기 안산시 고향마을을 방문한 김경협(오른쪽) 재외동포청장에게 “평양에 있는 언니를 만나게 해 달라”고 호소하는 성경자 할머니.

“사할린에는 대학이 없고, 본토로는 못 가고, 그때 북한 사람들이 와서 북한으로 오라고 막 선전했어요. 아버지는 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

결국 언니는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대 의대를 졸업해 의사가 됐다. 그 선택은 두 자매의 60년 이별의 시작이었다.

성 할머니의 부친은 1916년생으로 울산이 고향이다. 1905년 러일전쟁 승리로 일본이 사할린 남부를 점령한 뒤, 1938년 석탄과 목재가 풍부한 사할린에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지자 젊은 조선인 남성들은 탄광과 벌목장으로 강제 징용됐다. 할머니 부친도 이때 끌려갔다. 이후 모친이 세 살배기 언니를 업고 부친을 만나러 사할린으로 갔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언니는 두고 가라’고 했대요. 근데 어떻게 놔두고 가겠어요. 그래서 업고 갔죠.”

### “아버지, 술 마시며 고향 생각에 눈물”

부친은 사할린에서 탄광 일을 했다. 성 할머니는 아버지의 환갑잔치를 또렷이 기억했다.

“아버지 환갑 때 동네 사람들 다 오고,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춤도 추고... 그때 아버지가 술 한 잔 마시더니 고향 생각하며 우셨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어머니(1924년생)는 하바롭스크에서 생을 마감했다. 두 분은

고향 울산 땅을 다시 밟지 못했고, 평양에 간 큰딸을 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았다.

할머니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해 공장에서 버터 등 유제품 만드는 일을 했다. 성당에 다녔고 세례명은 니나다. 나무로 지은 ‘땅집’에서 살았는데, 밭도 있고 땅도 있는 단독주택 형태라고 했다.

“우리는 빵이 밥이에요. 빵에다 국 끓여 먹고, 감자에 시금치, 양배추 넣어서 죽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거실에는 러시아 초콜릿과 빵이 놓여 있었다. 근처에 러시아 식품점이 있어 자주 사 온다고 했다.

할머니는 기자에게 초콜릿과 프라니키(쿠키)를 건네고, 식빵 위에 러시아 소시지를 올려 먹어보라며 웃었다.

남동생 두 명은 아직 사할린에 남아 있다. 나이 제한으로 한국에 올 수 없었다. 할머니는 1945년 5월생으로 기준에 맞아 영주 귀국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장애인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 4남매는 한국과 평양, 사할린으로 흩어져 서로를 그리워하며 생이별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

언니의 남편은 원자력 분야 박사였다고 했다. 모스크바에도 오갔지만, 지금은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 아픈 여운으로 남았다.

“저는요, 언니 생각밖에 없어요.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언니 손자, 손녀, 조카들도 보고 싶고...” **창**

# 재외동포 참정권 확대...복수국적 연령 하향 추진

## 김경협 청장 “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있게 답할 것”

**재**외동포청이 동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정책 기반을 고도화하고, 재외선거 제도 개선과 동포 영사 확충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실질적 권익 증진에 나선다. 아울러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과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로 동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2026년은 차별 없는 포용의 관점에서 동포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중대한 시기”라며 “재외국민이 국내외 어디에 있던 주권자로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고, 재외동포가 합당한 보호와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각지에서 위상이 높아진 동포사회의 역량이 대한민국의 외교·경제적 자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 중심의 동포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 동포 DB 구축해 정책 기반 고도화

재외동포청은 이를 위해 ▲동포 DB 구축 ▲동포 핵심 민원 해소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 ▲범정부 동포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재외동포 정책의 기초 인프라로서 디지털 기반의 '동포 DB'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매 홀수년도 실시 중인 '재외동포현황 조사'를 고도화하고, 국가별 통계 환경 차이와 동포 이동성에 따른 변동 요인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90일 초과 해외 체류 의무 등록하도록 한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 서류 간소화, 재외선거인 등록과의 연계, 출국 전 사전 등록 및 갱신제 도입, 등록 안내 문자 발송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재외국민 등록 의무가 없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해 정부 사업·행사 참여 시 개인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동포단체 지원 기준과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정보는 통합 관리해 정책 운영의 기반으로 활용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업무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동포사회의 핵심 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재외선거 제도의 경우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순회 투표소 도입, 투표 시간과 기간 확대 등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선거인명부 활용을 통해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도입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과 ARS 본인확인 등을 활용한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국회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한 한인 정체성 교육 기반도 강화한다. 전 세계 1천400여 개 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부처별로 분산된 재외 한국어 교육 사업은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연계·조정한다.

동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재외공관의 동포 영사 기능도 강화한다. 동포청이 정책 전략과 자원을 제공하고, 동포단체가 정책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6년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파트너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현안이 많은 핵심 공간에는 전담 영사를 배치해 현안 대응과 선거 지원 기능을 보강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도 단계적으로 낮춘다. 현행 65세에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를 대상으로 우선 만 50세까지 하향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운영 성과를 토대로 추가 조정을 검토한다.

또 한인회장단, 한상, 직능단체, 청년·차세대를 포괄하는 통합형 '세계한인대회'를 신설·정례화해 동포사회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공식 소통 채널로 운영할 계획이다.

### 동포영사 확충 등 핵심 민원 해소

아울러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대륙별 대회와 지역 지부 결성을 지원해 동포사회의 자율적 역량 결집을 돕는다.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는 교육·취업·정착을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을 2026년부터 도입해 지역 특화형 인재로 육성한다. 고려인, 사할린, 입양, 재일, 원폭 피해 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동포에 대한 국가적 책무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 내에 '귀환동포 국내정착 전담조직'을 신설해 맞춤형 지원과 국내외 동포 간 교류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정책 기획·조정·집행 기능을 일원화하고, 직능·세대·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재외동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발굴과 평가에 동포가 직접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동포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며 “동포의 시선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끝까지 답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에 동포청 업무보고

'2026년 업무추진계획' 발표에 앞서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동포청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편투표 도입을 비롯한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우편·전자투표 등 가능한 참정권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이에 ‘(도입에) 우려의 의견도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이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집단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우편 제도가 미발달해 그렇다면 보완책을 만들(면 된다)”며 “그것 때문에 우편 투표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 아니냐”며 “해외에 나와 있다고 투표를 사실상 못 하게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냐며 재외동포청 중심으로 통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 출범 3년차 국정과제 실현 위해 숨 가쁘게 달려

## 복수국적 연령하향 · 재외국민투표 개선 초석 다져

2025년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지 3년차를 맞아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 재외동포청이 그동안 밝혀 온 '70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대변자'로서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인 재외동포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며 민생과 현장을 행진 사례가 쏟아졌다.

특히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재외동포청을 이끌게 된 김경협 제3대 재외동포청장이 9월 10일 취임 이후 재외동포청의 사업 진행 속도는 더욱 빠르게 탄력을 받아 추진됐다. 출범 이래 처음으로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동포ON'이 공식 출범하면서 유튜브 기반 24시간 콘텐츠 송출을 시작했다.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한 재외동포 문학상은 출품작이 전년도 대비 91% 증가하며 사상 최대의 참가율을 보였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수상자 전원을 초청해 국내 문인들과의 교류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역대 최대 성과를 올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비롯해 제26차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행사,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재외동포의창' 2025년 송년호에 올 한해 재외동포청의 10대 뉴스를 엄선해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의 업무 조율과 국회 협력을 끌어내 동포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최초로 동포 업무를 맡았었고, 국회에서는 지난 2017년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 기본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 1 김경협 제3대 재외동포청장 취임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재외동포청을 이끌게 된 김경협 제3대 재외동포청장이 9월 10일 취임했다. 이후 재외동포청의 사업 진행 속도는 더욱 빠르게 탄력을 받아 추진됐다. 김 청장은 취임 50일을 맞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700만 재외동포는 우리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며 가야 할 동반자"라며 "행정 편의 시각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동포 정책을 펼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과 예산이 아직 반쪽짜리지만 3선 국회의원 경험을 살려 정부 부처와

### 2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역대 최대 규모 수출계약 성과

재외동포청이 미국 애틀랜타에서 지난 4월 17일부터 나흘간 개최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역대 최대규모의 수출계약 성과를 내고 폐막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는 총 6억6천만 달러(약 9천900억원)에 달하는 상담이 이뤄졌으며 4천990만 달러(약 740억원)의 현장



계약이 체결돼 한류 상품에 대한 미국 현지의 인기를 재확인했다. 글로벌 한류 인기에 힘입어 K-바이오, K-뷰티, K-푸드 등 분야에 특화해 기업전시회를 마련한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미국의 상호 관세 등 관세장벽이 높아진 시점에서 대기업에 이어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 진출도 본격화됐다는 점도 이번 대회에서 주목받았다.

### 3 제26차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성료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가 10월 1일 서울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동포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다짐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세계를 잇다, 미래를 밝히다'라는 슬로건 아래 사흘 동안 진행됐다. 행사에는 전 세계 67개국의 한인회장과 대륙



별 총연합회 임원 등 370여 명이 참여했다. 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5천만 국민과 700만 재외동포가 함께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특히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로 인해 동포 사회에서도 현지에서의 안전이나 비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 보장 등 제도 개선책을 약속했다.

### 4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식



재외동포청은 11월 20일 '제27회 재외동포 문학상' 시상식을 갖고 국내 문인들과 교류하며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펼쳤다. 재외동포 문학상은 한글 문학 창작을 통해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고취하고, 재외동포와 우리 국민들 간의 문화적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공모전이다. 올해는 총 61개국 965명이 2천467편을 접수해, 응모자가 전년도 대비 91%가 증가하며 사상 최대의 참가율을 보였다. 이번 시상식에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시·단편소설·수필 3개 부문, 총 12명의 수상자가 참석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수상자 전원을 초청해 국내 문인들과의 교류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상식 후 윤소라 성우의 '수상작 낭독회'에 이어, 우한용 작가의 특강, 구효서·박상우 작가와 수상자들 간 '작가와의 대화'가 이어졌다.

### 5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동포ON' 공식 출범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유튜브 기반 24시간 방송 플랫폼 '동포ON'이 12월 9일 라이브 프로그램 '케이팝 온



에어' 첫 방송으로 문을 열었다. 동포ON은 한국 뉴스와 동포정책 정보는 물론 한국어 교육, K-팝,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등 재외동포 관심 분야를 아우르는 '올인원(one-stop)' 콘텐츠 허브를 지향한다. 재외동포 거주 지역별 시차를 반영해 프라임타임 시청이 가능하도록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재외동포청은 24시간 송출 체계를 마련하고 모니터링 인력 배치, 백업 시스템 구축, 주간 편성표 도입 등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갖췄다. 이번 플랫폼 개편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신규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라이브 프로그램으로는 재외동포청 소식과 글로벌 동포사회 주요 이슈를 전하는 '재외동포리포트' 등이 편성된다.

## 6 사할린동포 234명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 82명이 12월 18일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고국 품에 안겼다. 이들은 2025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34명 중 첫 번째 귀국자들이다. 행사에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등이 참석해 80여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동포들을 맞이했다. 김 청장은 환영 인사에서 "이번 영주귀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80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며 "특히 영주귀국 대상 사할린 동포의 과반수가 돌아온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1992년 영주귀국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총 5천690명이 영주귀국했다.

## 7 역대 최대 2000명 동포 차세대 모국 방문 연수



차세대 동포에게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발전상 이해를 통해 정체성과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관한 '2025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가 역대 최대 약 2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올해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는 청소년의 경우 6차례, 청년은 3차례에 걸쳐 총 9회에 걸쳐 각 6박 7일 일정으로 실시했으며, 6차례의 하계(7월~8월) 연수에는 75개국 1천8여명의 청소년, 대학생이 참여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동계 연수에서는 각 100명씩 200명의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연수를 가졌다. 재외동포청은 제1차 재외동포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을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 확대 원년으로 삼아, 오는 2028년까지 6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8 46개국 한글학교 교사 234명 초청 연수



재외동포청이 7월 14일부터 6박7일 일정으로 개최한 '2025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가 막을 내렸다. 46개국 234명의 한글학교 교사는 수료식에서 "교육자로서 초심을 돌아보고 역량을 강화한 충실한 시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동포청은 처음 도입한 '인공지능(AI) 활용 한국어 교수법 워크숍'을 비롯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글 교육' 특강, 수준별 한국어 말하기·쓰기 교수법 워크숍, 교사 심리 치료 강연 등을 진행했다. 또 수업을 살리는 놀이 교육,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관 관람 등 총 16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초청연수 개최식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축사를 보내 "선생님들의 열정은 우리말의 밝은 미래를 이끄는 빛"이라고 격려했다.

## 9 국내 정착 동포 지원 위한 정책 대화

국내 정착 동포 지원을 위한 정책대화가 2025년 수차례에 걸쳐 활발하게 이뤄졌다. 특히 11월 24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 동포 국내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대화'에서 중국 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을 위해 전문가와 중국 동포 단체장들은 "인식 개선은 캠페인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체류자격·국적·예산·교육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경협 청장은 이날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로 귀환한 동포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귀환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10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 및 수출상담회 개최

재외동포 경제인 바이어 그룹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OK-BIZ)과 국내 중소기업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 및 수출상담회가 부산과 목포, 전주에서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재외동포청과 부산광역시, 목포시, 전주시 등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은 '한상 경제권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포럼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수출상담회도 마련됐다. 수출상담회에는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이 1대1로 수출상담을 도와 성과를 높였다. 동포청과 지자체는 행사를 계기로 해외 한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재일동포사회에 기여 오기문 전 재일대한부인회장

재일민단 결성, 재일대한부인회 창립 등 사회운동가의 길 걸어  
사할린 무의탁 노인을 위한 양로원 설립 등 소외 동포 위해 헌신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2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재일민단 및 재일대한부인회 창립에 기여하고 사할린 무의탁 노인 등 소외된 동포들을 위해 헌신한 고 오기문(1911~2014) 전 재일대한부인회장을 선정했다.

1911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오기문 회장은 16세 때 일본 유학생 배강이 씨와 결혼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오 회장이 24세 때 남편이 심장마비로 타계 후 시부모님을 포함하여 8명 식구의 가장이 됐다. 남편에게 받은 금반지 한개를 포목전에 맡기고 허드레천을 구입해 여성용 속옷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속옷을 입지 않던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여자 혼자 8명의 식구를 먹여 살리는 모습을 보다못한 지역 민생위원장(지금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임하는 사람)이 도와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며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에 감동을 받은 민생위원장이 다음날 아침에 사진사 4명을 데리고 와서 재봉틀을 돌리며 일하는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날 일본 4대 신문 1면에 "조선 부인이지만 일본 부인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사진 설명과 가정형편이 상세하게 보도됐다.

## 일본 4대 신문 1면에 상세 보도

'말 못할 생활형편 이면서도 민생 보호금을 끝까지 사양하며 불우한 장애인들에게 돌려주라고 하였으니 조선부인 중에도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 조선인이라고 함부로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기사가 실리면서 오 회장은 유명세를 탔고, 여기저기서 동포들이 일감을 주면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긴 오 회장은, 일본에 건너 올 때부터 꿈꿨던 사회운동가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오 회장은 동포가 고초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 한달음에 달려가 그들을 도왔다. 특히, 억울하게 경찰에 잡힌 동포들을 구제하는데 힘을 쏟아 '여변호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오기문  
전 재일대한부인회장

1945년 10월 27일 22년 간 투옥돼 있던 박열 선생의 출옥을 기념한 환영식에 여류인사로 초청받은 오 회장은, 신탁통치에 지지하는 재일조선인연맹(조총련)에 분노해 강단으로 뛰어올라 '신탁통치 반대'를 부르짖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열 선생과 의기투합하여 1946년 1월 '신조선 건설동맹'이 결성됐고, 오 회장은 200만엔 기금을 활동 자금으로 지원했다. 그해 가을 이 조직을 모체로 하여 '재일대한민국거류민단'이 결성됐고, 그녀는 초대 부녀부장 겸 재정부장으로 취임했다.

민단을 창립한 후, 그녀는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세 열사의 유골을 발굴하는 것에 열정을 쏟았다. 당시 40만엔을 후원하였으며, 그 결과 1947년 세 열사의 유골을 수습하여 유골봉환위원회 위원으로서 한국으로 유골을 봉환하여 효창공원에 모셨다.

오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민단에서 탈퇴하는 단원들이 자주 발생하자 거류민단 붕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거류민단 단원 부인들을 규합하는 단체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허정숙 여사와 의기투합하여 1947년 8월 재일본대한부인회 도쿄 본부를 결성하고, 2년 뒤인 1949년 6월 부인회 총본부를 결성해 일본 전국 조직으로 확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외동포 명예위원 및 호국외국인 유공자 초청 만찬에서 오기문(91. 가운데) 재일한국인 부인회 고문에게 재외동포 명예위원 위촉장을 주고 있다.

### 6·25 전쟁 위문 활동 등 조국을 위한 봉사

재일본대한부인회 총본부를 결성한 지 1년 만에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민단과 부인회의 활동이 위축됐다. 이 와중에 오 회장은 민단에서 모집하는 의용군에 여성을 포함시키도록 요청하고, 주일한국대표부에 찾아가 청원을 넣는 등 국가를 위한 일에만·녀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며 여성들의 전쟁 참전을 강력히 주장했다. 여성들의 참전이 허용되지 않자, 오 회장은 위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민단 부인회원들을 소집해 도쿄 거리에 나가 모금 활동을 벌이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붕대, 의약품, 헌옷, 담요 등 구호품을 구입했다. 오 회장을 포함한 3명의 여성이 첫 번째 위

문단으로 파견돼 구호품을 전달하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부인회는 전장뿐만 아니라 후방에서도 전쟁고아와 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했다.

오 회장은 일제 강점기 때 사할린으로 강제이주 당한 한국인들이 일본 패망 후에도 송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할린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는 일본 총리 공관을 방문하여 사할린 동포 귀환을 위한 시위를 하기도 하고, 재일본대한부인회 회장 자격으로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며 사할린 동포 귀환을 위해 힘썼다.

1992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 귀국이 시작되었을 때, 오 회장은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양로원을 세우기 위해 일본 내 자산, 고향에 사두었던 전답 등을 처분해 10억원의 자금을 마련했다. 결국 1987년 그녀가 태어난 경북 고령군에 대조구국원을 설립하고, 1993년 대창양로원을 개원했다. 그동안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무의탁 노인 145명이 대창양로원에서 여생을 보냈고, 현재 7명의 사할린 귀국 동포와 44명의 노인이 대창양로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재일동포들과 사할린 무의탁 동포들을 위해 헌신한 그녀의 공적을 기려 1978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1996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오기문 회장은 일평생을 조국과 동포들을 위해 바친 분”이라며 “그녀의 숭고한 업적이 후대에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12월의 재외동포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포청은 대한민국 발전 또는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를 발굴해 매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김평진 전 재일제주개발협회장, 홍명기 전 M&L Hong 재단 이사장, 임천택 독립운동 지사, 박병헌 전 재일민단 단장, 박노학 전 사할린역류귀환한국인회 회장, 이익경 지사, 서세모 의학박사, 서갑호 회장, 미국 임덕상 교수 등이 선정됐다. [▶](#)



2011년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보낸 100세 축하장



6·25 전쟁 중 이승만(맨 오른쪽) 대통령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오기문(오른쪽서 3번째) 회장

# ‘고려인 위기가정 및 재외동포 지원정책’ 토론회

## 이기성 국장 “장학·비자·복지·교육 등서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제도 개선 지속”



고려인 위기가정 및 재외동포 지원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모습.

**고**려인 위기가정 및 재외동포 지원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사단법인 너머(이사장 신은철)와 이용선·박수영·이재강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생계·주거·심리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와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국내로 귀환한 고려인 동포들이 4년째 제도적 지원 미비와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복합 위기에 놓인 상황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재외동포는 ‘긴급복지지원법’ 상 지원 대상이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천재지변·화재·범죄 피해자에 한정된다. 이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대다수 외국 국적 동포는 법령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일부 고려인 동포는 안정적인 정착지를 찾지 못해 전쟁 지역과 한국을 오가며 위험을 감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토론회는 두 개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박이숙 선문대 교수가 ‘국내 위기 상황 재외동포의 긴급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는 유제영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활동가가 ‘우크라이나 피난민·위기 고려인 동포 긴급 지원 사례로 본 제도 밖 동포의 현주소’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특히 생계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피난민과 장애인 가족 또는 한 부모 다자녀 생계 위기 가정의 당사자가 직접 사례를 발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기성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을 비롯해 법무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경기도·안산시·인천시 등 지자체 담당자, 김종홍 고려인자원연대 아리랑 대표, 김용필 ekw 동포세계신문 대표,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 정영주 연세대 교수 등 고려인 동포 지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국내 체류 동포를 ‘관리 대상’이 아닌 ‘포용과 지원의 공동체’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

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시각 차이로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는 “동포에게 국적에 따른 차별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제도 정비를 지시했고, 재외동포청은 장학·비자·교육 지원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밝혔다.

이 국장에 따르면 아직 정부 내에는 국내 체류 동포를 바라보는 두 시각이 공존한다. 한쪽에서는 동포를 독립·경제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공동체로 인식하며 적극적인 포용과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본다. 반면 또 다른

시각에서는 동포를 단순 외국인 노동자나 잠재적 불법체류자로 인식해 ‘통제와 관리’ 중심의 접근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 차이가 복지·교육 등에서 정책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이 국장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올해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며 동포 분야 전반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동포청은 이에 따라 국내·해외 동포 청년을 위한 별도 장학사업을 신설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존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 동포는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새 장학사업은 특수·역사적 동포와 저소득층 청년을 중심으로 연 150명 규모의 전액 장학금과 월 110만 원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졸업 후 국내 취업·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를 위한 체류자격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비자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F4 비자를 가진 동포가 생계를 위해 H2 업종에서 일할 경우 ‘불법취업’으로 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은 F4 비자 소지자의 H2 업종 취업을 폭넓게 허용해 달라고 법무부·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논의는 당초 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전됐으며, 외국인정책위원회 일정 조정에 따라 2026년 초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동포 청소년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재외동포청은 경희대와 협력해 동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2025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200여 명의 전문 강사단을 구성해 한글·기초 학습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밀착형 교육을 제공한다. 다만 대안학교 지원은 기획재정부의 결정으로 ‘5:5 매칭 펀드’ 방식이 유지돼 현장의 부담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복지 사각지대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현재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할



토론회에서 고려인 위기가정 및 재외동포 지원정책 방안에 관해 발언하는 재외동포청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앞줄 오른쪽서 두 번째)

수 있어 동포 노인은 배제돼 왔다. 정부는 대통령실과 함께 해당 규정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복지제도 역시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 위기 동포 지원이 불가능해, 재외동포청은 ‘위기동포 특별지원법(가칭)’ 제정을 국회와 논의 중이다.

이기성 국장은 특히 “동포를 지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원칙은 확고하지만, 제도 조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의 국정철학에 맞춰 장학·비자·복지·교육 등 전반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국내 정착 재외동포 중에서도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3세 최올가(48) ‘고려인 장애인 가족 모임’ 인천지부 대표와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전사자의 아내 김잔나(35) 씨가 위기 가정 사례 발표자로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김잔나 씨의 증언은 홀로 피난길에 올라 살아남아야 했던 전쟁 난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남편 김막심(37) 씨와 결혼한 김 씨는 러시아와의 전쟁 발발 후 가족과 함께 피난을 결심했다. 그러나 국경에 도착한 순간 남편은 전쟁터로 끌려갔다.

김 씨는 시부모, 아들과 함께 2022년 10월 한국에 입국했고, 징용된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2024년 10월 전사했다. 입국 당시 김 씨 모자는 난민 비자(G-1)를 받았고, 이후 너머센터 도움으로 아들은 재외동포 비자(F-4), 김 씨는 방문동거 비자(F-1)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F-1 비자는 취업이 불가능해 생계를 위해 일회성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사자 연금으로 가까스로 생계를 이어가지만, 김 씨는 6개월마다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연금 관련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시부모 역시 고려인이지만 한국 국적이 없어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창**

# 선교사 아들 금의환향...“한국·가나는 두 어머니”

## 주한 아프리카 대사로는 첫 한국계...“대사에 왜 한국계” 한때 논란 성공한 사업가서 대사로 화려한 변신...“한국인 근면함이 큰 자산”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중학생 때 아프리카 가나로 건너가 정착했다가 주한 가나 대사로 30여년 만에 고국인 한국에 금의환향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최고조(48) 주한 가나대사가 12일 국내 언론 가운데는 연합뉴스와 처음으로 인터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나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제출한 뒤 대사로 공식 업무를 개시한 이날 주한 가나대사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태어난 한국 땅에서 가나 대사로 일하는 것이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사로서 가장 큰 목표는 저를 낳아준 한국과 저를 키워준 가나가 가장 좋은 친구,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가나가 수교한 1977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자칭 ‘가나 수교동이’인 최 대사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마친 뒤 중학생이었던 1992년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가나에 정착했다. 피부색이 다를 뿐 아니라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현지 문화도 모르는 한국에서 온 중학생에게 가나의 학교생활은 큰 도전이었다.

“처음엔 놀림도 많이 받았습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속에 호기심, 친근함 그리고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깨달았습니다.”

### “가나 남는 선택으로 한-아프리카 가교”

어릴 때부터 장기였던 탁구로 학교를 석권하고 현지 친구들과 함께 뒀글자 서서히 친구들이 마음을 열었다. 그는 정·재계 지도자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현지 명문 고등학교와 가나 국립대 경영학과를 거치며 가나 주류 사회에 진입할 발판을 마련했다. 인생의 분기점은 고등학교 졸업이었다. 미국과 한국 대학에 진학할 조건



신임장 제출 뒤 이재명(가운데) 대통령과 기념촬영하는 최고조(왼쪽) 주한 가나대사

을 갖췄지만, 그는 가나에 남는 길을 선택했다.

당시 최 대사의 아버지는 “미국에 가면 수많은 한국인 중 한 명일 수 있지만 가나에 남으면 더 귀한 존재가 돼 한국도 너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는데 이 말이 그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였다.

최 대사는 “돌아보면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며 “가나에 남았기에 나는 가나를 사랑하는 한국인, 한국과 아프리카를 잇는 다리가 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가나에 남기로 결정하고 가나 국적 취득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그는 이런 이력 때문에 한국과 가나에 대해 “제게는 어머니가 두 분 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대한민국이고 또 한 분은 저를 키워주신 아프리카 가나”라고 표현했다.



최고조 주한 가나대사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주한 가나대사관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고조(제일 왼쪽) 주한 가나대사와 6자녀

### 가나 디지털 경제 선도하는 기업인으로 성공

최 대사는 대사가 되기 전 가나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먼저 알려졌다. 그는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다”며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출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프리카 최대 통신사인 MTN의 파트너사 ‘나나텔레콤’과 핀테크 선도기업 ‘페이스위치’를 설립하는 등 가나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아프리카에서 사업가로 성공한 비결에 대해 “정직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버텼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며 “한국인의 근면함이 제게 큰 자산이 됐고 그 덕분에 가나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보였던 것이 많은 기회를 열어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쌓은 인연은 장래 사업을 할 때 그에게 큰 자산이 됐다.

최 대사는 1992년 가나에서 민정이 출범한 이후 5명 대통령과 모두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었다. 이 중 3명의 대통령과는 한국에서 특사나 고위 인사가 올 때 그가 통역과 자문을 맡으며 양국 관계가 발전하도록 도왔다. 이런 경험이 결국 최 대사가 주한 대사로 부임할 수 있는 힘이 됐다. 아프리카는 출산율이 높은 대륙인데 그도 자녀를 6명이나 뒀다.

최 대사는 우스갯소리로 “5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이제 그만 낳겠다’라는 의미로 ‘안나’라고 지었는데 미국에 갔을 때 현지에서 ‘애나’라고 불렸다”면서 “결국 1년 후 아이가 또 태어났다”며 웃었다.

### “가나로 돌아갈 때 칭찬받는 대사 희망”

성공한 기업인으로 가나 사회에 기여했지만, 그가 주한 대사로 임명되자 가나 소셜미디어에서는 찬반 논쟁이 일면서 대사 임명이 국가적 이슈로까지 확대됐다. 그때 가나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다름 아닌 최 대사가 현지 중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찍은 사진 한 장이었다.

“가나에 처음 왔을 때 제 어린 모습, 현지 중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는 사진,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전한 일화 그리고 제가 선교적 나눔의 삶을 살아온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퍼져가면서 여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인들이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사람이구나’라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결국 90%가 넘게 최 대사 임명에 찬성하는 분위기로 반전됐다. 그는 지난 10월 한국계 첫 주한 아프리카 대사로 한국에 부임했다.

최 대사는 아프리카에서 불고 있는 한류 바람을 언급하며 대사로써 한국과 문화 교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나에는 혼자 K팝 노래 한 곡을 끝까지 부를 수 있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다”며 “제가 이번에 주한 가나대사로 임명됐을 때 수많은 가나 친구는 저를 보고 웃으며 ‘오펠!’(Oppal)라고 외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7년 한국과 가나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국을 대표하는 K팝 가수가 가나에서 월드투어 공연을 하고 현지에서 지역에 남을 따뜻한 기부와 사회공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최 대사는 ‘가나 대사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큰 목표는 저를 낳아준 한국과 저를 키워준 가나가 가장 좋은 친구,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며 “가나로 돌아가는 날, 가나 국민 앞에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대사가 되고 싶다”고 대답했다. **장**

# “한-러시아 청년 교육 연결고리 되는 게 꿈이에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립대 정보·창의 기술 전문대학 부학장  
4번의 교환학생 경험, 고려인 청년의 꿈...“한국 대학과 교환학생 확대가 목표”

“이번 모국 방문은 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교육 교류의 연결고리가 되고 싶다는 꿈을 더욱 확고히 해했습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이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가 주관한 ‘차세대 동포 청년 모국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안나(27)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립대 정보·창의기술 전문대학 부학장은 “한국과의 교육 협력 확대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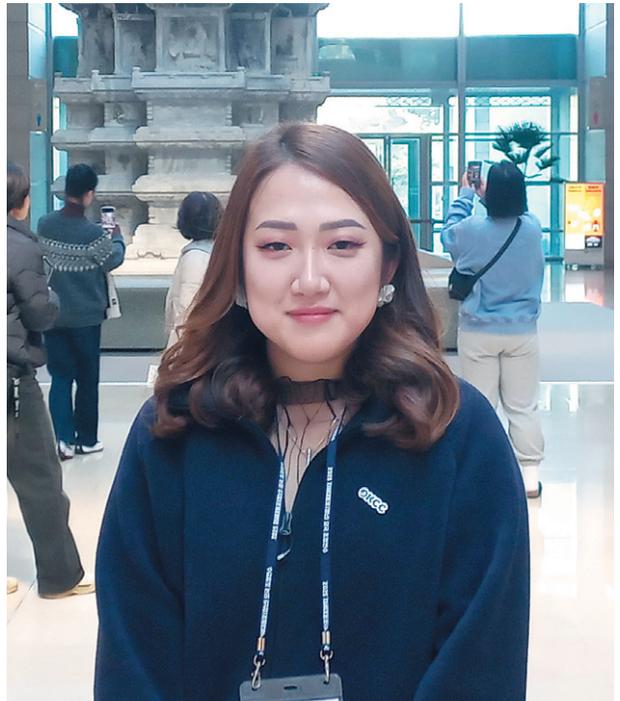
정 부학장은 K-팝 열풍에 영향을 받아 2014년부터 5년간 블라디보스토크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모국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이후 성균관대, 경북대, 서울여대 등에서 네 차례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찾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차세대 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에도 적극 참여했다.

서울여대 교환학생 시절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에 자원봉사로 참여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세계청년학생축전 등 여러 대형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특히, 2020년부터 3년간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총영사관 명예 기자로 활동하며 한국문화를 러시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이 같은 경험을 통해 쌓은 한국어 실력은 그에게 큰 힘이 되자 경쟁력이 됐다. 한국인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설립한 건설회사에 취업해 부대표 자리까지 올랐고, 2022년 블라디보스토크 주립대 산하에 전문대학이 설립됐을 때 참여했다.

개교 당시 190명이었던 학생 수를 불과 4년 만에 1천500명 이상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두며 지난해 1월 부학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러시아 청년 가운데 보기 드문 ‘한·러 교육 교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정 부학장은 대학에서 마케팅을 강의하며, 홍보대사팀·미디어팀을 이끄는 멘토 역할도 맡고 있다. 그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러시아 전문대 학생을 위한 한국 교류 프로그램 신설’이다. 온라인 수업, 양국 학생 공동 프로젝트, 교수 교류까지 포함된 ‘복합형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그는 이번 모국 방문을 “정체성의 재확인”이라며 “한국에 올 때마다 제 뿌리가



지난 12월 4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정안나 부학장.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느껴진다”고 말했다.

정 부학장은 이번 모국 방문 프로그램에서 고려인 선배들의 교육과 창업 강연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며 “문화 체험 중심의 기존 캠프와 달리 실질적인 진로와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고, 큰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미래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며 “재외동포로서 한국의 관심과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정말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저에게 두 번째 고향과 같아요. 앞으로도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교육·문화의 다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장**

## “고려인도 모국 전문직서 성공할수 있어요”

모국방문 연수 통해 ‘정체성·진로’ 재정립…“카자흐스탄 고려인 돕는 것이 삶의 목표”  
고려인 선배 강연·창업 사례서 ‘가능성’ 확인…현지서 1만 학생 교육 프로그램 기획

“고려인도 한국어 전문 분야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더 많은 고려인 청년들과 나누고 싶어요.”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4세 윤에스더(26) 씨는 지난 1~5일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가 주관한 ‘2025년 차세대동포 청년 5차 모국 초청연수’를 마친 뒤,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참가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윤 씨는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고려인으로서의 뿌리와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와 인하대를 방문해 강연을 들으며 큰 울림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인하대 이진영 교수의 강의에서 “고려인들의 한국 정착은 외국인의 ‘이주’가 아니라 모국으로의 ‘귀환’”이라는 설명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그는 또 우즈베키스탄 출신 박엘레나 씨가 한국에서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창업한 사례도 인상적이라고 했다. “고려인도 공장 노동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윤 씨는 카자흐스탄 최대 규모 입시교육센터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교육센터는 5개 도시에 12개 분원을 두고 있으며 1만여 명의 학생이 다닌다. 그는 600명 이상의 학생을 직접 상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공부를 흥미롭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윤 씨의 정체성 형성의 출발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치원 때부터 한복을 입고, 한국어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고려인 문화를 접했고, 부모님의 교육과 한국 음식·전통 경험이 정체성의 기반이 됐다.

윤 씨는 대학 진학 당시 재외동포협력센터 프로그램 정보를 구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고려인 청년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는 장학금 공지가 나오면 지인들에게 빠르게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 서류 작성까지 도와준다.

그는 재외동포협력센터 현지 장학생으로 두 차례 선정돼 여



고려인 4세 윤에스더 씨

름 모국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윤 씨 언니 역시 재외동포협력센터 초청 장학생으로 한국어교육 석사 과정을 마친 뒤 한국에 정착해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 K-팝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러시아어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그는 목표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활동, 동포 청년들의 장학금 신청 지원 등 현재의 모든 활동이 그 목표의 연장선이다.

윤 씨는 “고려인 정체성이 지금 세대에서 단절되면 단지 ‘성씨’로만 남을 수 있다”며 “정체성은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꾸준히 노력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지켜지는 유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전 세계 고려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고려인 청년들이 이런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강조했다. 

## 24시간 글로벌 소통 플랫폼 '동포ON' 공식 출범

한국 뉴스 · K-콘텐츠 · 동포정책 한곳에...12월 9일 첫 라이브 방송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유튜브 기반 24시간 방송 플랫폼 '동포ON'이 문을 열었다. 재외동포청은 기존 유튜브 채널을 전면 개편해 재외동포 전용 소통 플랫폼 동포ON이 12월 9일 첫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동포ON은 한국 뉴스와 동포정책 정보는 물론 한국어 교육, 케이팝,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등 재외동포 관심 분야를 아우르는 '올인원(one-stop)' 콘텐츠 허브를 지향한다. 재외동포 거주 지역별 시차를 반영해 프라임타임 시청이 가능하도록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재외동포청은 24시간 송출 체계를 마련하고 모니터링 인력 배치, 백업 시스템 구축, 주간 편성표 도입 등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개편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신규 콘텐츠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먼저 라이브 프로그램으로는 ▲재외동포청 소식과 글로벌 동포사회 주요 이슈를 전하는 '재외동포리포트' ▲케이팝 아티스트와 차세대 동포가 함께하는 음악·토크 프로그램 '케이팝 온에어' ▲동포들이 요청한 체험·탐방을 대신 수행하는 '대신 해드립니다' 등이 편성된다.

정규·기획 콘텐츠도 대폭 강화됐다. ▲한국어를 명장면으로 배우는 'K-클럽' ▲아이들과 함께 한국문화와 언어를 나누는 'K-라운지' ▲세계 각지 한인사회의 일상을 조명하는 '한인상회' '동포인사이드' ▲해외 전문가 인터뷰 시리즈 '오버보더(Over Border)' ▲동포의 시선으로 한국을 여행하는 다큐 '난생처음' 등이 대표적이다.



재외동포 전용 소통 플랫폼 '동포ON'

동포ON은 단방향 송출을 넘어 동포사회가 직접 콘텐츠 제작과 소통 과정에 참여하는 상시형 창작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재외동포가 직접 촬영·편집한 영상을 소개하는 '동포영상 코너', 재외동포 콘텐츠 공모전과 수상작 송출, 글로벌 동포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등이 마련된다.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도 적극 활용해 동포사회 간 교류와 동포청과의 직접 소통 창구를 넓히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재외동포를 주제로, 재외동포가 궁금해하는, 재외동포에게 꼭 필요한 콘텐츠를 24시간 제공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동포ON이 국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새로운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동포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 동포청, 내년 예산 56억 늘어난 1천127억원 귀환동포 지원 강화

## 청년 인재 육성 · 고려인 박물관 건립 · 보안관제센터 구축 신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히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동포청은 기존 세계한인회장대회 한계를 보완해 차세대, 경제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포를 포괄하는 신규 통합행사로서 '세계한인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이 총 1천127억원으로 올해 대비 56억원이 증액됐다고 5일 밝혔다.

동포청은 2026년 예산을 국정과제 이행에 중점을 두고, '귀환동포 지원 강화', '세계한인 네트워크 재편', '차세대 정체성 교육 강화',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등 핵심 사업을 증액 편성했다.

우선 100만 귀환동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을 7억4천만원에서 11억1천만원으로 늘렸다.

이와 맞물려 동포 청년을 국내 지역으로 유치해 교육·취업·정주에 이르기까지 지원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동포 청년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 사업에 신규로 30억9천만원을 배정했다.

기존 세계한인회장대회 한계를 보완해 차세대, 경제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포를 포괄하는 신규 통합행사로서 '세계한인대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지역별 한인사회 교류 활성화를 위해 3억원을 책정해 '대륙별 한인회장 대회'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사할린한인 국내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

사업'의 일부 예산인 78억원이 내년부터 동포청으로 이관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또, 한-우즈베키스탄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고려인 정주 90주년인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공사비가 3억5천만원에서 25억3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이라는 목표에 맞춰 디지털 행정 기반을 강화하는 보안관제센터 구축에 27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 밖에 차세대 동포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글학교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을 186억에서 195억원으로 늘렸고, 공관 방문이 어려운 동포를 대상으로 영사가 직접 찾아가 서비스하는 순회영사 활동 지원을 7억7천만원에서 8억2천만원으로 확대했다.

동포청 관계자는 "2026년 확정된 예산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집행함으로써 동포사회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더 신뢰받는' 동포 정책을 구현해 동포사회가 처한 현안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답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재외동포청-한국사회학회, '포용적 국내 동포 정책' 논의

'이주 시대의 사회통합' 주제로 학술대회...노령화·비자 이슈·차별·혐오 문제 다뤄

재외동포청은 '이주 시대의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재외동포정책 학술대회'를 19일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정책 전반에 걸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재외동포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한국사회학회(회장 임운택)와 공동주최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발표는 송영호·최영미·박미화 한양대 교수, 조경희 성공회대 교수가 했다. 이기성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장, 박상희 성공회대 교수, 김지영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학술대회는 재외동포 유관기관·학회, 재외동포정책 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이주 시대의 사회통합이라는 주제 아래, 세 가지의 세부 주제 ▲경계에 선 노년(국내 거주 동포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과 건강) ▲가장 유리한 경로의 구성(재외동포 비자와 영주 비자, 그리고 귀화의 전략적 선택) ▲일본의 '혐한'과 한국에 주는 함의가 논의됐다.

제1주제 '경계에선 노년'에서는 국내 거주 동포가 고령화됨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는 다차원적 사회적 케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효과적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제2주제 '가장 유리한 경로의 구성'에서는 재외동포의 국내 거주에 따른 실제 삶에 부합하는 정부의 유연한 제도적 설계(국내 정착 시 필요한 비자 및 재외동포의 국내 거주 특성 감안)의 중요성이 강조했다.

제3주제 '일본의 혐한과 한국에 주는 함의'에서는 포용적 사회통합 정책의 시급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재외동포정책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한국사회학회 총회에서 이주 시대의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다루어진 발표와 토론들은 재외동포청이 직면한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조명해 주었다"면서,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국내 거주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구성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향후 동포사회의 연대와 결속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재외동포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재외동포 포함 국민 및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 재외동포청-한국경영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활용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재외동포청은 한상(韓商)인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사업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인천 송도 소재 동포청 본청에서 한국경영학회(회장 양희동)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연구·자문·상호 정보 공유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 모색 ▲동포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연계 및 협력 방안 모색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에 분포한 동포 경제인들이 보유한 현지 시장 정보와 사업 경험, 인적 네트워크를 국내 기업과 효과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장벽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진출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경협 청장은 “한국 경영학의 발전을 이끌어온 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 세계 우리 동포 경제인들의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재외동포청은 3일 인천 송도 본청에서 한국경영학회와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양희동 한국경영학회 회장, 김경협 동포청장.

동포 기업과 국내기업을 연결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공공의료기관 문서,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

### 동포청,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 공증받는 불편 해소

재외동포청은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에 대해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를 발급한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다.

해외 취업, 주재관 파견, 유학 등 해외 진출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 공공의료기관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 문서는 사문서로 분류되어 공증인으로부터 공증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었고, 공증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동포청은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의 공공의료기관의 문서에 대해서도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망 관련 서류의 경우 공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경감돼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포스티유 접수 및 발급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에서 가능하며,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02-6747-04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



## 재외동포청 주요 일정

- 3일: 한국경영학회와 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사업 확대 위한 업무협약식
- 12일: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연말 위문품 전달식(안산시 고항마을)
- 15일: 12월 '이달의 재외동포', 오기문 전 재일대한부인회장 선정
- 18일: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환영식(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 19일: 2026년 재외동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자 브리핑  
재외동포정책 학술대회(한국사회학회 공동 주최)
- 23일: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 재외동포청 공지

# 2026년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참가자 모집

해외 동포기업서 6개월 근무...1월 16일까지 연간 40명 모집

재외동포청은 국내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참여할 정기 파견 인턴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사업은 해외에 진출한 동포기업과 국내 청년을 연계해 실무 중심의 해외 근무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이 글로벌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국제 감각과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6년에는 연간 40명 내외의 국내 청년을 선발해 해외 동포기업에 파견할 예정이다. 인턴십 기간은 총 180일로, 파견 국가는 인턴 근무가 가능한 비자 발급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는 현지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파견 직무는 무역, 행정, 마케팅, 디자인 등 인턴의 직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분야로 구성된다. 단순 노무직은 제외되며, 전공과 관심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실무 중심 직위가 배정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파견국 비자 발급 및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만 34세 이하의 국내 청년이다. 최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 4학기 이상, 전문대학 2학기 이상을 수료한 재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2026년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참여 인턴 모집 공고 포스터

다만, 기존에 동일한 동포기업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또 인턴십 전 과정을 중도 포기 없이 성실히 이수할 의지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선발이 이뤄진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며, 한상넷 홈페이지([www.hansang.net](http://www.hansang.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별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이후에는 서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참가자가 선발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인턴십 사업을 통해 국내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과 국제 업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동포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인턴십 담당 부서(032-585-3226, 이메일 [mjan23@korea.kr](mailto:mjan23@korea.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한파 6대 행동요령

이렇게 행동하세요!



한파행동요령



## 기상 상황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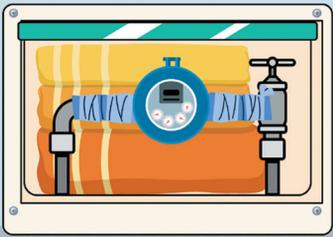
## 야외활동 자제



## 따뜻한 장소 휴식



## 외출 시 방한용품 착용



## 수도관 동파예방



## 주변 이웃 안전살피기

# 더 큰 대한민국, 재외동포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유튜브



재외동포청 인스타그램